

## 자꾸만 돈이 새는 진짜 이유 상식밖의 경제학 (댄 애리얼리, 장석훈 역, 청림출판)



김승욱 중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휘발유 값이 오르면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까? 원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표준 경제학에서는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처음에는 소비가 줄어들지만 곧 다시 소비가 증가한다. 왜 값이 올라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값싼 커피 대신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더 마실까? 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도 공짜라면 얻으려고 달려들까? 벌금이 효과적일까? 돈으로 사명감을 살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행위를 할까? 비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선택이 선입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어떠한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더 쉽게 합리화할까? 도둑질 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들도 왜 보험청구할 때는 도덕적 부담감 없이 부풀려서 청구를 할까? 이 책은 표준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적 경제행위들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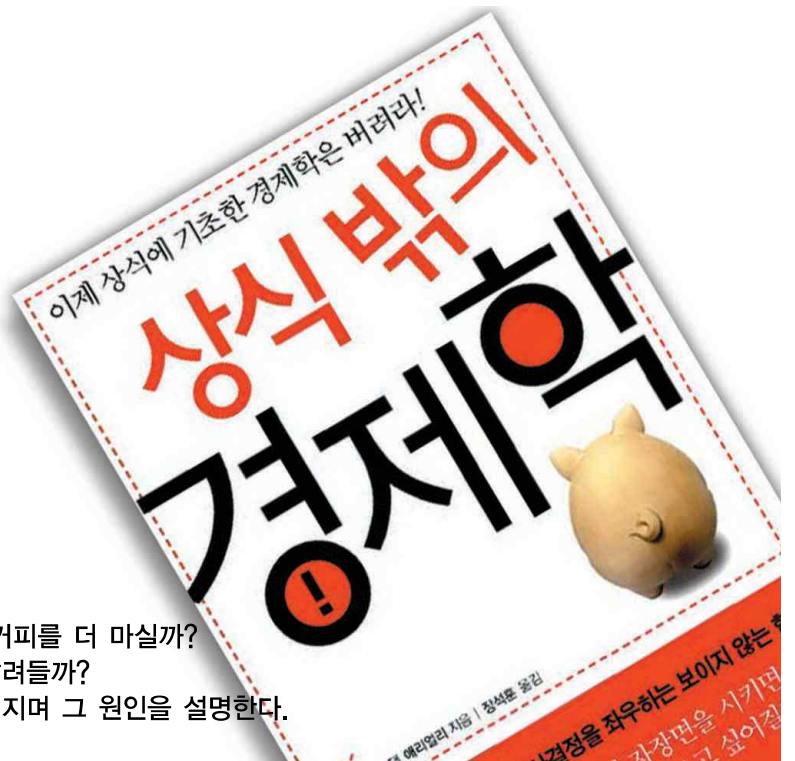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은 얼핏 보기에는 경제학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고, 각 주제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기술된 경제학 책이다. 즉 이 책은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경제학 분야의 연구 성과

를 비전공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상식밖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이 책의 제목은 *Predictably Irrational*이다. 직역하면 “예상대로 비합리적인”이 될 것이다. 좀 풀어서 쓴다면 “역시 인간은 예상대로 비합리적이야” 정도의 뜻이 될 것이다.

### 표준 경제학-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이 책에서 언급한 ‘표준 경제학’이란 아담 스미스 이후 지난 200년간 발전되어온 신고전학과라고 불리는 주류 경제학을 말한다. 이 표준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또한 인간은 항상 일관된 행위를 하고 자신의 선택적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거래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마치 자연법칙처럼, 수요법칙이나 공급법칙 등의 경제 법칙을 도출한다.

이러한 표준 경제학의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을 수용해 온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분석의 편의성 때문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인간이란 복잡



왜 사람들은 값싼 커피 대신 스타벅스 커피를 더 마실까?  
 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도 공짜라면 달려들까?  
 이 책은 현실적 경제행위들에 질문을 던지며 그 원인을 설명한다.

한 존재다. 게다가 저마다 다른 인간들이 모인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없이 행동한다는 것을 수용하고는 일관성있는 설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이 늘 일관성있게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그러한 가정 하에서 인간의 경제적 선택 행위를 예측하려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간혹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돌출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규칙적인 것이어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쟁과정과 시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선택은 줄어들고 결국 합리적인 선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행동 경제학-인간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

이러한 두 가지 이유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비현실적이지만,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등의 가정들을 수용해왔다. 그렇다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 조건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은 비현실적인 가정조건들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보면, 이러한 표준 경제학에서 전제로 선택했던 가정조건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대체하는 이론들을 발전시킨 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주어 진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우주의 진공상태처럼 거래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고 전제하는 표준 경제학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거래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거래 비용이 존재할 경우를 고려한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 theory)을 발전시킨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1991), 그리고 이를 경제사에 응용한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 1993)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임스 A. 멀리스와 윌리엄 비크리(1996), 조지 애컬로프, 마이클 스펠스, 조지프 스티글리츠(2001) 등은 완전 정보의 가정을 완화해 정보경제학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심리학과 경제학을 연결시킨 '행동경제학'도 역시 이러한 새로운 경제학의 분야 중의 하나이다. 행동경제학은 보다 현실적인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경제학과 연결시킨 것이다. 즉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론을 전개하는 표준 경

이 책은 과소비의 원인을 소유의식이 만들어내는 비이성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진단하고,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학과 달리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 분야의 선구자는 197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A.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이다. 그는 카네기멜런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경영학·심리학 교수를 지냈는데,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bounded rationality)라는 전제 하에서 인간의 경제행위를 분석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유행시켰다. 그 이후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2002년에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Daniel Kahneman)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행동경제학'은 더욱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 읽기 쉬운 행동 경제학

MIT에서 행동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댄 애리얼리(Dan Ariely)의 『상식 밖의 경제학』은 최근에 한국에 소개된 이 분야의 책 중에 비전공자들이 가장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카너먼 등이 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판단: 추단법과 편향』은 전공자들을 위한 전문서이고, 김영사에

서 펴낸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들: 사이먼과 카너먼』은 사이먼과 카너먼의 이론을 소개했는데 너무 이론적이다.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인 도모노 노리오가 쓴 『행동경제학』도 비전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기분으로 약간의 인내력을 요한다. 그런데 이 『상식 밖의 경제학』은 행동경제학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탁월한 저서이다. 미국에서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책이 노벨 수상자들의 이론을 소개한 이전의 행동경제학 책들과 다른 점은 행동경제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밝히는 실험 경제학 분야가 카너먼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버논 스미스(Vernon L. Smith)에 의해서 발전되었는데, 이 책에는 그러한 실험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다. 종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실험을 할 수 없는 학문으로 간주되었지만, 실험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실제적인 행동을 여러 가지 고안된 실험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표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것과 달리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가를,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 행동의 원인을 여러 실험결과를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비이성적인 경제적 선택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 선입견, 고정관념, 소유의식, 믿음 등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은 표준 경제학과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돌출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표준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으며,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반면에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부분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이 감정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만 해도 비합리적 행동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비금전적인 비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리를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 등을 통해서 기존의 표준 경제학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경제적 선택

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주의깊게 볼만한 부분은 사회 규범과 시장규칙에 대한 견해이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행동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크게 두 가지를 나누었다. 첫째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시장규칙이고, 둘째는 명예, 자존감 등에 호소하는 사회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사회에서는 금전적인 인센티브 보다는 사회규범에 의한 질서 유지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인간관계가 금전적인 관계로 변화되면서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시장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필자와 같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랫동안 몸 담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책에서 댄 애리얼리는 탁아소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 규범이 시장규칙에 밀리게 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연구결과와 소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탁아소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을 지킬 것을 사회규범에 호소하던 때는 늦게 찾으러 오게 되었을 때 부모들이 미안해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자, 더 많은 부모들이 당당

하게 늦게 찾아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벌금이 효과 없어서 그 이후에 벌금을 없앴더니 더욱 많은 부모들이 늦게 찾으러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규범이 한번 시장규칙에 밀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을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벌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새겨들어야 한다고 본다.

### 기독교적 적용

이 책은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쓰인 책은 아니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크리스천들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잠언 23:4)는 말씀처럼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과소비의 원인을 소유의식이 만들어내는 비이성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진단하고,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연약해서 새해 결심도 오래가지 않고 지나친 소비를 참으려고 해도 물건을 보면 사고 싶다. 표준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이어서 자기의 소득 범위 내에서만 소비한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번에만 예외로 하면서 다음부터 지키겠다는 “미루기” 습관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 재미있게 본 것은 정직함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직함을 포기하는가를 실험했는데, 십계명을 아는 대로 적어보라고 함으로써 도덕감을 상기시켜준 집단에서 속이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기독교가 주류가 아닌 사회에서는 십계명 대신에 직업강령을 환기시키는 등의 도덕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 해도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아주 흥미로웠다. 이 책을 읽고 필자는 앞으로 내 시험지 상단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를 적어두고 시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시험을 보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본인은 부정행위가 동료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임을 명심하며,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중앙대학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시험 중에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여러 학우와 본인의 양심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글은 「목회와 신학」2009년 3월호 「두란노 복리뷰」의 ‘전문가의 책읽기’에서 발췌하고 허가를 받아 다시 실은 글입니다.